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사바스 수사

루가 제 13주일

파라모노스와 370인 순교자

제 8조, 조과복음 3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성탄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 에페소 4:1~7 / 봉독서 328

•복음경 : 루가 18:18~27 / 131, B 8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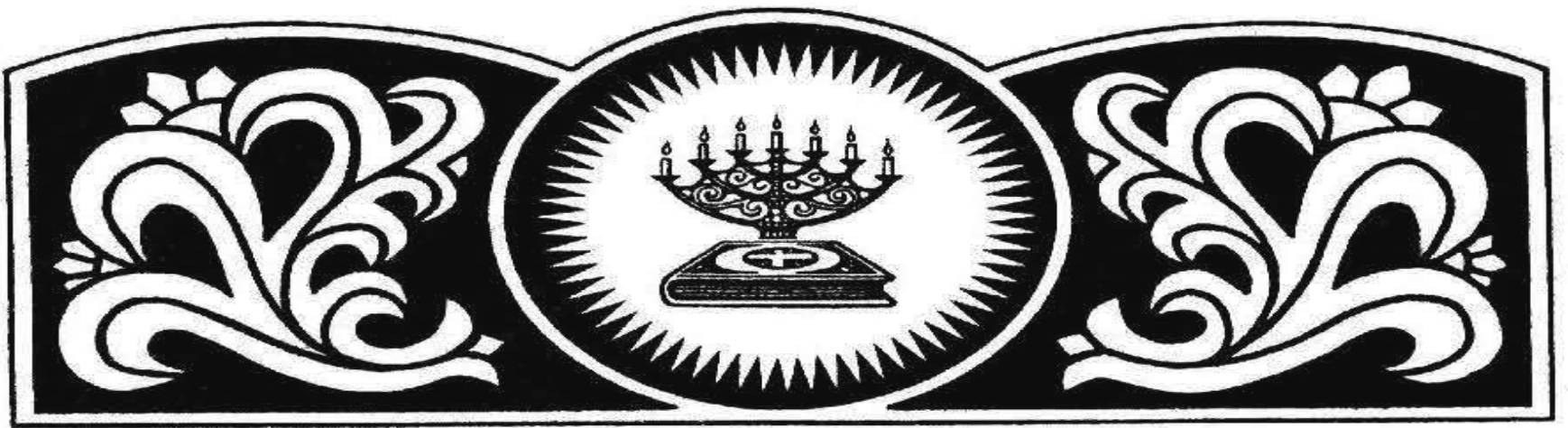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사바스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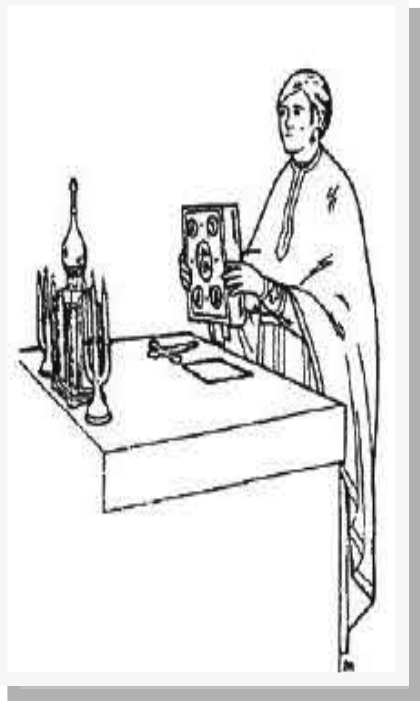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서 12월 5일에 “금욕 투쟁의 향기로운 보배”라고 불리는 성 사바스 (439-532) 수도자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인은 성서에서 이야기 하는 “고행의 대가는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성가작 사가는 성인의 생애에 대하여 “자신의 생활을 모범으로 하여 사람들이 보고 성화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천사이며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 사바스는 수도사의 고행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수도방식을 하나의 인장처럼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인의 명성은 아직까지도 그 자체의 질서와 전형을 가지고 오늘날 날까지 그 지역에서 수도사들의 삶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빛을 보았고, 하늘에 성령을 받았으며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에게는 기쁨과 건강과 위대한 신성한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정신적인 빛이, 자체적으로 발하는 빛으로서,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늘 옥좌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복음말씀과 신성한 감사의 성사에서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세상에 오는 참 빛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성찬예배에서 거룩한 복음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위대한 감사의 성사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빛을, 보지 못하는 대신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 마음의 눈을 깨닫게 비취주소서. ...”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혈성사를 영한 후에 바로 “우리가 참 빛을 보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았으며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에페소5:8) 빛의 자녀처럼 걸어갑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빛나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5:16)라는 말씀처럼 되게 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5)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아바 이사악(7세기)은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께로 다가갈 때, “당신 자신을 하찮은 개미나 땅 위를 기는 생물, 또는 거머리, 말을 더듬는 젓먹이 아기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바 세라피온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마치 언제나 깨어있으며 서서 경비를 서는 군인처럼 잘 준비되고 응급상황에 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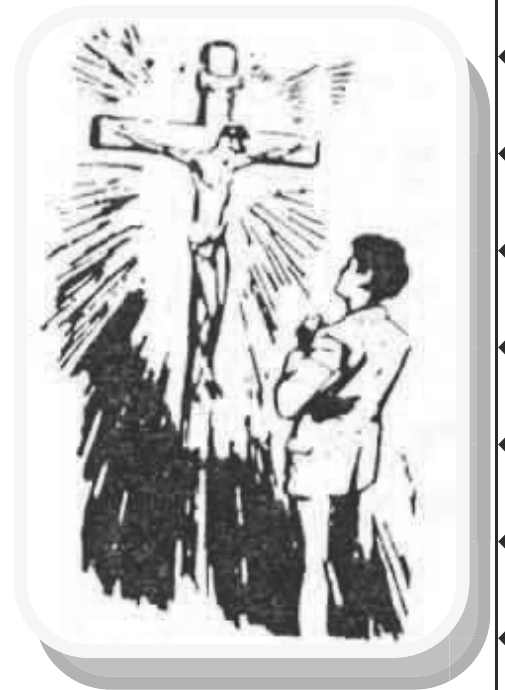
위대한 기도의 스승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347-407)는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와 대화하는 분(하느님!)을 잘 알고, 또한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깨어있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회(痛悔: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뉘우침)하는 마음과 눈물, 공경하는 마음, 대단히 차분하고 평온한 자세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기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선 안됩니다. 당신이 죄인일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느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의 죄 때문에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만큼, 그분의 선하고 풍부한 섭리와 돌보심이 발휘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기도에 대한 모든 망설임과 의심을 멀리 제거하십시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0일(월)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안드레아 사도의 중보로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수도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오늘 11월 29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의 수호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성당 대청소

오늘 11월 29일 주일 성찬예배 후에 성 니콜라스 축일을 준비하는 성당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신자 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12월 5(토)~6(일), 2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지 못한 수련회 대신에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서울로 와서 함께 예배와, 영적 공부와 놀이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변경될 것입니다.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식

지난 주일(22일) 성찬예배 후 12월에 수능시험과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예식



11월 30일(월) 성 안드레아 첫 사도

12월 2일(수) 성 보르피리오스 수도사제, 하바죽 예언자, 미로삐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